

봉차트 정보 간단하… 공시사항 요약정리… MTS가 쉬워진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토스 막대그래프로 직관적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KB-줌인터넷
합작법인 통해 새 MTS 출시예고
기술적 분석요소 시각적으로 구현

토스증권을 필두로 2030을 위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 투자 초보자)'를 위해 보다 단순하고 차별화된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등 한 눈에 보기 쉬운 MTS를 표방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핀테크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KB증권·줌인터넷의 합작법인 프로젝트바닐라에서 새로운 MTS를 출시할 예정이다.

◆토스증권, 신규 계좌수 200만개

토스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수가 200만개를 넘겼다. MTS 서비스를 개시한지 한달 만이다.

토스증권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주식 1주 선물받기' 이벤트가 2030세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신규 계좌 개설이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식 1주 선물받기는 토스증권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주식 1주를 랜덤 증정하는 이벤트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합작 투자회사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김우승 줌인터넷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바닐라

특히 신규 계열된 200만개의 계좌 가운데 2030세대가 전체 사용자의 70%(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새로운 증권사의 출현을 기다렸던 2030세대 투자자의 기대와 투자자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인 UX, 19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토스 플랫폼의 경쟁력이 합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은 지난 3월 초보 주식 투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MTS를 출시했다. 기존 토스 애플리케이션에 주식 거래 기능을 탑재한 것.

기존 증권사 MTS에서 볼 수 있는 봉차트(캔들차트)와 이동평균선 등을 과감하게 빼버리는 등 복잡한 정보를 없

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고, 공시사항을 요약정리해 알람으로 보내주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직관적인 정보만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구매(매수)TOP100, 영업이익률TOP100, 수익률TOP100 등 음원사이트를 연상시키는 인기차트 메뉴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프로젝트 바닐라… MTS 경쟁 본격화

카카오페이증권과 KB증권·줌인터넷의 합작법인 프로젝트바닐라도 새로운 MTS 출시를 예고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코스피 상장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장 후 조달 자금을 증권, 보험 등 신사업 확장

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MTS 연내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UI·UX 부분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 팀이 같이 개발하고, 증권 부분은 원장 관리시스템(증권사가 고객 계좌·거래 내역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코스콤과 카카오페이증권이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시스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선 해외 주식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금융 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기존에 출시된 펀드도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등 1000원 미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많은 분들이 유입됐다"며 "국내 주식에서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초보 투자자들도 무리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하고, 분산투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과 줌인터넷의 합작법인인 프로젝트바닐라도 이른바 '한국형 로빈 후드 MTS'를 출시한다. 초기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설립된 프로젝트바닐라는 줌인터넷과 KB증권이 각각 지분 51%,

49%를 보유했다. 새로운 MTS에 줌인터넷의 기술력과 KB증권의 금융 노하우를 담았다.

봉차트를 없앤 토스증권과 달리 기술적 분석 요소도 그대로 가져와 시각적으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줌인터넷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일 MTS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출시 할 수 있도록 막바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존 주식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봉 차트 등 기술적 분석 요소도 그대로 가져와 토스증권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 MTS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권사 MTS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증권사 MTS를 금융 플랫폼으로 부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내 금융시장은 검색 시장의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카카오 수준으로 과정화에 성공한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회사를 통한 월간 활성 사용자(MAU) 확보에 강점을 가진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은 아직까지 브로커리지에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증권사들은 지금이 MTS의 트래픽을 강화하고 공고화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장안 상업중심지 위치… 오피스텔로 규제부담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분양 롯데백화점·삼육서울병원 등 도보이용

현대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7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을 분양한다.

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실 규모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3~20층짜리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38㎡A·B·C(일부 복층) 72실 ▲57㎡A·B(일부 복층) 36실 ▲59㎡A·B·C·D·E·F(일부 복층) 126실 ▲78㎡A·B 135실 등 소형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신혼부부 등 20~30대의 관심이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주요 도심권역인 장안동에서도 메인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도보권 내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장안점 및 롯데시네마 장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투시도.

/현대건설

안점 등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삼육서울병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반경 1km 내 장평초, 은석초, 동답초, 안평초, 장평중, 동국사대부중, 동국사대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휘경여중, 휘경여고 등과 서울시립대도 가깝다.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힐스테이트 장안 등 전국 2817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7곳서 견본주택 개관 예정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2817가구(오피스텔 주상복합 민간임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을 비롯해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비규제 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등 눈여겨 볼 만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4일 인천 계양구 방죽동 22 일대에 짓는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정연우 기자

견본주택은 7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5곳, 계약은 11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철강 수요·가격 ↑… 2분기 실적 기대감 UP

metro 관심종목

포스코

〈포스코 목표주가〉

/각 사

| 증권사 | 목표주가 |
|------------------|------|
| 日 노무라 | 52만원 |
|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 49만원 |
| 유진투자증권 | 46만원 |
| 현대차증권 하나금융투자 | 45만원 |
| 키움증권 | 44만원 |

지난 4월 30일 전 거래일보다 9000원(-2.41%) 하락한 36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이날 종가 기준 기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 자리를 탈환했다.

증권업계는 잇따라 포스코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

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49만원으로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유진투자증권 46만원, 하나금융투자·현대차증권 45만원, 키움증권 44만원 등의 순이다. 외국계 증권사인 일본 노무라도 포스코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올려잡았다.

포스코의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 추가 개선이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고로사의 실적은 중국스팟(spot) 열연·원자료 스프레드(spread)에 통상 1~2분기 후행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 추가 개선이 확실시된다"며 "2분기 영업이익은 1조730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